제 목	국 문	양성전립선비대증의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국내문헌의 메타분석
	영 문	Meta-analysis of the Literatures : Guideline Development for Benigh Prostatic Hyperplasia Treatmen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유승흠[1], 김춘배[2], 송재만[3], 강형곤[1], 강명근[2],고상백[2]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원주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영 문	Seung-Hum Yu[1], Chun-Bae Kim[2], Jae Mann Song[3], Hyoung Gon Kang[1], Myung Geun Kang[2], Sang Baek Koh[2] [1]*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 [2]*Dept. of Preventive Medicine, Wonju College of Medicine,* [3]*Dept of Urology ,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춘배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v) → 완료 예정 시기 : 96 년 12월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뇨기계 주요 질환의 하나인 양성전립선비대증(benigh prostatic hyperplasia, BPH)의 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개발을 위해 BPH의 치료에 관한 국내문헌들을 메타분석하여 진료지침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 방법

가. 진료지침 개발 연구팀의 구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과 대한비뇨기종양학회의 '전립선비대증 진료지침 마련을 위한 Consensus Meeting 준비위원회'의 연구위원으로 진료지침 개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나.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960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등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문헌을 검색한 결과, BPH 관련 논문 208편(원저 199편, 종설 9편)이 수집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원저 중 BPH의 치료방법에 관한 106편의 문헌들(51.1%)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 분석방법

진료지침 개발연구팀에 의해 작성된 문헌 평가양식에 의해 106편의 논문을 사전분류한 후, 자료를 변수화하여 dBASE에 입력하고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논문의 주제, 연구설계방법, 통계방법 및 질적수준 등에 관해서는 기술분석을 하였고 메타분석에 의해서 BPH의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통합정리할 예정이다.

3. 연구결과

1) 연도별 발표된 논문수의 현황을 보면 60년대 2편(1.9%), 70년대 8편(7.5%), 80년대 33편(31.2%), 90년대 63편(59.4%)으로 치료 관련 연구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논문들은 대한비뇨기과학회지(90편, 84.9%), 대한남성과학회지(6편, 5.7%), 고려의학(3편, 2.8%)과 기타(7편, 6.6%) 등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 이를 BPH 치료방법별로 세분해 보면,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TURP) 등 수술적 치료방법이 53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요법 13편(12.3%), 내고정물을 이용한 치료 10편(9.4%), 온열요법 10편(9.4%),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4편(3.8%), 경요도 전립선절개술 2편(1.9%) 및 기타 상기 치료방법들의 혼용한 연구가 14편(13.2%)이었다. 연도별로는 수술적 치료방법이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각각 1편, 8편, 24편, 20편으로 지속적인 선호를 보인 반면, 약물요법의 경우 80년대에 2편, 90년대에 11편으로 최근에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른 치료방법들은 모두 1990년 이후 임상에 적용되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3) 연구설계방법으로는 단발사례연구 46편(43.4%), 단일집단 사전검사-사후검사설계 55편(51.9%), 정태집단비교 3편(2.8%), 사전검사-사후검사 통제집단설계 2편(1.9%)이였다.

4) 사용된 통계방법으로 기술분석만을 사용한 논문이 59편(55.7%)으로 가장 많았고, t검정을 이용 치료 전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31편(29.2%), x^2검정,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상관분석 포함)은 각각 3편(2.8%)씩이였으며, 나머지 7편(6.6%)은 여러 방법들을 혼용하여 분석하였다.

4. 고찰

의학적으로 정확성이 있으며 환자나 의사의 임상활용시 보다 유용한 진료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관련 문헌의 집중적인 검토에 의한 메타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메타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는데 주요 이유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거의 확률할당에 의하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이나 자료 수집이 주로 후향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발표된 논문이나 자료들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으므로 메타분석시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논문들의 질적수준을 평가기준에 따라 고찰해 보면, 확률할당 등 가장 수준이 높은 연구들은 4편(3.8%) 정도에 불과했다.